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12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Column

GCF 유치에 따른 인천의 책무와 과제

Interview

김상섭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장과의 만남



IDI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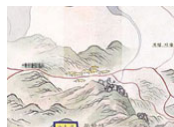
인발연-경인일보 공동
주최 GCF 정책토론회
녹색기후기금(GCF) 사
무국 인준 이후 정부와
인천시의 후속 대응방안
과...

Zoom 人



공작은 멋을 지닌 아동
마니아_도시기반연구부
김정숙 초빙연구원
우리 연구원 초빙연구원
으로서 고참적인 김정숙
초빙연구원은 올해로 입
사한...

Zoom INcheon



경인로2_경인로와 전
흔(戰痕)
제물포 개항 이전까지
경인로의 상태는 자연
도로에 가까웠으며 개
항되던 해...

도시동향



마이애미 속의 작은
쿠바:리를 하바나
마이애미 대도시권의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
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히...

IDI 연구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연구
GCF는 기후변화 관련
기금을 운영하는 대형
국제금융기구로 환경
분야의...

인천지표



GCF 사무국 유치전
략 비교
2012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GCF 유치에 따른 인천의 책무와 과제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12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GCF 유치에 따른 인천의 책무와 과제

김 종 대 · 인하대학교 경영대 교수/지속가능연구소 소장

녹색기후기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코펜하겐기후금융(Copenhagen Climate Finance Pledges)은 2009년 코펜하겐의 당사국회의(COP15)에서 합의한 단기긴급재정지원으로 2012년까지 선진국이 총 300억 달러를 기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징집다리로 해서 2013년부터 녹색기후기금(GCF)으로 전환해 개도국과 빈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체계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당사국회의(COP18)에서 GCF 사무국 도시로서 인천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GCF 본부라 할 수 있는 사무국을 인천에 유치한 것은 인천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사와 기후변화 대응 역사에 기념비적인 일임에는 틀림없다. 경제적으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회성 국제잔치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GCF 본부 유치에 따른 우리의 명예와 실리를 최대한 챙기기 위해서는 이제 냉정한 분석과 철저한 대응전략을 차분히 구상해야 할 때이다.

우선, 유치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야 한다. 기존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에 입각하고 단순화된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코펜하겐기후금융의 예를 보면 국제간의 기후변화 금융지원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환경개발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올해 11월 코펜하겐기후금융의 성과를 분석하는 보고서인 '긴급기후재정지원의 8가지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보고서는 그 긴급기후재정지원에서 합의한 300억 달러 중 236억 달러만 선진국이 약속하였으며 그것도 실제로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1년 9월까지 113억 달러만 집행되었다. 그리고 전체 기후기금은 지불 승인된 수치가 25% 미만이며 따라서 원래 약속한 총액 대비 1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GCF의 경우에도 2013년부터 3년간 300억 달러, 그리고 점차 확대하여 2020년 이후 매년 천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기금의 조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 외에도 투명성의 결여, 불공정한 부담, 무상이 아닌 대출형태의 지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전체 집행액 중 UN을 통한 집행액은 2%이하에 불과하며, 기존의 ODA(공적개발원조)와 중복되어 신규 및 추가집행이 적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집행의 대상에 있어서 기후변화의 완화(mitigation)에 비해 적응(adaptation)에 관심이 저조한 편인데 향후 기후변화기금이 위의 두 목적 중 어디에 사용되는가에 따라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며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기금이 기존의 기금 집행과 마찬가지로 적응보다는 완화에 집중된다면 개도국의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등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감소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등에 많은 자금이 집행될 것이다. 반면에, 완화보다는 적응에 초점이 주어지면 온난화에 따른 개도국의 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 즉, 물부족, 빈곤, 의료·보건문제, 생활환경, 사회기반시설 등의 개선 또는 해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역의 산업계가 향후 GCF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나 GCF의 기금조성시기, 집행 분야, 그 의사결정의 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 마련에 만전을 기해 GCF 및 기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본부 유치에 따른 관련 인력의 국내 거주에 따른 소비 및 소득 창출효과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관광 등의 많은 분야에서 이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가 가장 먼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인천을 세계적인 기후변화 및 환경 모범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GCF 유치 도시로서의 상징성에 걸맞는 환경도시 건설에 정부와 인천시가 과감한 정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 환경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최악의 경우 유치국으로서 부담만 늘고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교토의정서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부담 때문에 산업과 국가경쟁력에 큰 부담을 안게된 일본의 선례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

인천시가 진정한 기후변화 모범도시로 변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교통시스템, 산업구조 등을 근본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인천시의 환경성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중요한 핵심지표(KPI)로 선정하여 장단기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투명한 의사소통을 위해 인천시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는데 주의할 점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자체는 인천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칫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으로 인천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된다.

인천이 친환경도시로 거듭나고 GCF로부터 인천시가 경제 및 산업발전과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이제 차분하고 냉정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을 비롯해 인천시의 지배구조가 친환경적으로 변해야 하며, 송도가 아닌 인천을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 산업계, 연구 및 교육기관, 시민단체의 참여 속에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 낼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녹색기후기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코펜하겐기후금융(Copenhagen Climate Finance Pledges)은 2009년 코펜하겐의 당사국회의(COP15)에서 합의한 단기긴급재정지원으로 2012년까지 선진국이 총 300억 달러를 기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12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GCF는 세계집단지성의 구속력 있는 책임이며 거버넌스

GCF는 세계집단지성의 구속력 있는 책임이며 거버넌스

아프리에 77호에서는 인천광역시 김상섭 환경정책과장을 만나 GCF 기금과 사무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어보고, GCF 사무국 유치 이후 실무책임자로서 달라진 점과 2013년에 추진 예정인 사업 등은 무엇인지, 그리고,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과도한 기대 또는 신중론을 제기하는 입장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김 상 섭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장

Q GCF 사무국 유치에도 불구하고, GCF 기금과 사무국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그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들어왔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태동한 기구들 가운데 팔목할만한 것이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의 UN기후변화협약(UNFCCC)이며, 보다 구체적이고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교토의정서입니다.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16차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했는데, 그동안 선진국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기금을 모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는데 집단지성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GCF라는 녹색기후기금입니다. 리우에서의 UN기후변화협약이 그 자체만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경성법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인 교토의정서와 GCF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성법이라는 것은 선진국 각국에 재정적 의무를 지우고 그 기금을 설계하는 것으로서, GCF는 국제기구이자 금융기구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운용하고 국제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포트할 사무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국 설치와 사무국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GCF는 독립적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하므로 UNFCCC의 산하기구가 아니고 실질적인 의사기구는 이사회입니다. 이사회는 기금을, GCF사무국은 GCF라는 국제기구의 본부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이사회의 책임을 지고 기금의 일상적인 운용을 담당하며 행정적이고 법적이고 재정적인 전문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기금을 모으고 배분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채용과 조직관리, 시설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구이기 때문에 돈이 적립될수록 수탁기관을 정해서 기금을 쌓아야 하므로 수탁기관과 이사회, 수탁기관과 각 나라들을 연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사무국이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주목해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지난 10월 20일 GCF 사무국 유치 확정 이후, 실무책임자로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고나 후속대책에 따른 발표와 토론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유치를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을 했던 사람이어서 행사를 준비하고 조직하는 부분들은 해내기가 수월했지만 내용적인 부분을 채워야 가지있게 토론하고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탄소가 인류 생존의 기본 전제이고 기후변화와 탄소배출을 제한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시대를 생각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린 리더십과 그린 리더러시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각계 지도자의 리더십 내용들이 표피적이고 기후변화에 대해 몇발짝 들어가보면 공허해지는 경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린 리더러시가 부족하고 일반 시민들의 이해도 취약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인천광역시에 GCF 지원 전담팀이 신설되었지요? 현재의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편제를 조속히 정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치과정에서는 공식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GCF 유치 업무를 병행해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GCF 기획전담팀이 있어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GCF 전담팀에 대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현재 7명으로 꾸려져있으며 여전히 환경정책과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전담조직으로 발족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정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고, 그렇다면 제로섬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협의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이나 2월 즈음에 GCF유치도시에 걸맞는 기후변화정책과 GCF 지원업무 등을 전담할 중량감 있는 조직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Q.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서 인천광역시가 앞으로 준비해나가야 할 일들을 서너 단어로 요약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될까요? 당장 2013년에 추진할 예정인 사업들에 대해 소개해주세요시오.

국제기구가 성장동력으로 기능하는 도시, 예를 들어 브뤼셀, 제네바 등처럼 우리도 GCF를 활용한 국제기구도시로 정의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야 벤치마크도 분명해지고 국제기구도시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제도시에서 비즈니스하고가족구성원이 와서 정주하는일들이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GCF의 가치와 비전이 어울리는 도시, 세계의 녹색환경 중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경제수도와 환경수도의 관계설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선 5기 인천 지방정부가 경제수도본부 추진체계를 돌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4년까지 단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적 범위, 경제수도를 가지고 가는데 여러 정책들을 내부적으로 안내하는 내부지침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저탄소녹색가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GCF사무국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수도 추진전략이 어떤 성격으로 나아가 한다는 내용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5년 민선 6기가 되면 단순한 경제가 아닌 글로벌 녹색성장이 확대 진전된 개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의 하드웨어적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 소프트웨어적인 도시철학이나 가치정립을 해나가면서 이것을 발판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담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Q.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향후 스케줄에 대해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시지요.

GCF가 가야될 길에 도사리고 있는 작은 함정들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한없이 늘어진다 해도 실망하거나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유치하고 7~8년을 준비하는 것처럼 GCF도 점점 커지는 기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봐 주었으면 합니다. 올해의 전반적인 평가는 미봉적 결론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고 세계 각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쿄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아직까지 2013년부터의 기금 문제는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목표인 연간 1000억달러에 대한 경로나 방식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보고하기로 합의되어 1년 늦춰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신 다소 미흡하지만 2013~15년까지 연간 100억불 정도의 자금을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투입하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계 임시 사무국장이 선출되어서 그 체제로 카타르 COP을 준비했고 조만간 여러 결정 문안이 회담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내년 첫 번째 회의가 3월의 베를린 이사회인데 그때 정식으로 사무국장이 선출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국장의 지휘 하에 사무국의 조직 구성이나 연간 업무계획이 만들어지고 채용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며 내년 7, 8월경 사무국이 송도에서 문을 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 여러 가지 제약상 초기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Q. GCF 사무국 유치 이후, 송도의 미분양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과도한 기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셨으면 합니다.

GCF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수준에서 활동들이 벌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GCF를 고안하고 출범시켰던 세계 집단지성이 돌아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더딜 뿐이라고 생각하고 과정을 즐길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GCF라는 것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송도와 인천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친환경적인 좋은 도시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리더십을 강화하고 구축해야 하며, 그런 리더십을 스스로 실천하면서 깨닫고 의지를 가지면서 주변의 계기를 찾아 공부하는 시민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대답 : 조 경 두(도시기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기록·사진 : 장 순 지(사무처 경영관리팀)**

아뜨리에 77호에서는 인천광역시 김상섭 환경정책과장을 만나 GCF 기금과 사무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어보고, GCF 사무국 유치 이후 실무책임자로서 달라진 점과 2013년에 추진 예정인 사업 등은 무엇인지, 그리고,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과도한 기대 또는 신중론을 제기하는 입장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12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발연-경인일보 공동주최 GCF 정책토론회

■ 인발연-경인일보 공동주최, 녹색기후기금 정책토론회 개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준 이후 정부와 인천시의 후속 대응방안과 과제를 알아보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3일, 우리 연구원과 경인일보 공동주최로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GCF 사무국 유치가 일회성 국가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인천시 등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구적으로 가져가야 할 정책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상협 기획관은 'GCF 사무국 인준과 인천의 대응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김상협 기획관은 "내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제19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GCF 재원 마련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논의될 것이다"며 "현재까지 각국이 합의한 사안은 2020년부터 매년 1천억달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00억달러의 단기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정확한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음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기조가 이어져, GCF 사무국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상인 UN 지속가능발전센터 선임개발관리관을 비롯해 우리 연구원 김민배 원장, 김중대 인하대 교수, 김주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남상민 UN 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 환경담당관, 박흥렬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정병일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인발연-인천대 연구교류협정서 조인식 개최

우리 연구원과 인천대가 지난 13일 인천대 본관 5층 영상회의실에서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리 연구원과 인천대는 이번 협정을 통해 도시 및 지역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자문 및 공동 노력,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기타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에 대한 제반 활동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인천항의 발전전략" 공동세미나 개최

우리 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18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인천항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가졌다. 우리 연구원은 2010년 KMI와 양기관간 공동 연구 및 학술교류, 정보교류 등 분야의 상호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한편, 이 행사는 '인천 물류인의 밤'(인천항발전협의회 주관)과 연계하여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 인발연 동경에 연구교류 거점기관 확보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일본 동경의 일본총합연구소(이사장 寺島實郎 테라시마 지쓰로)와 연구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일반재단법인 일본총합연구소(一般財団法人 日本総合研究所, Japan Research Institute / 이하 JRI)는 1970년에 당시 경제기획청과 통상산업성(현재 내각부 경제산업성)의 승인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東京都港区赤坂)에 본부를 두고 있다.

양 기관의 협정서 조인식은 지난 20일, JRI부속 이사장실에서 양측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협정을 통해 공동협력체계의 구축을 비롯하여 상호 공통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및 지식·정보와 인제 교류에 합의했다.

우리 연구원은 이번 협정을 통해, 일본 동경에 연구교류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매년 정례적인 학술행사 개최와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출처 발간을 통해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에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JRI와의 협정 후속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은 2013년 공동연구과제인 마을만들기 정책 및 지역의 산업역량 강화 방안의 사전 조사를 위해,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익재단법인 오토쿠산업진흥회를 방문하는 등 지역현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활동을 수행하였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준 이후 정부와 인천시의 후속 대응방안과 과제를 알아보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3일, 우리 연구원과 경인일보 공동주최로 송도 미추홀 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GCF 사무국 유치가 일회성 국가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인천시 등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구적으로 가져가야 할 정책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12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12월에 만난 idi people

곰삭은 맛을 지닌 아동 마니아

도시기반연구부 김/정/숙 초빙연구원

“아프리에 올해, Zoom人 코너에 ‘IDI 사람들’을 선보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솔밥을 먹고 있는 연구원, 행정사무직, 기능직은 물론이고 각종 모임, 전직 연구원까지 여러 관계와 인연을 만나려 합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연구원이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고, 가야할 길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서 고참적인 김정숙 초빙연구원은 올해로 입사한지 5년 3개월이 되었다. 대기 환경을 전공한 그녀는 전공 외에도 인천지역의 기후 변화 관련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는 입사하기 전부터 대학원에서 수행하던 과제들의 자문위원이자 인천시 대기 전문가로 익히 이름이 난 조경두 박사를 알고 있었고, 대학원 선배이자 당시에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던 홍미옥 초빙연구원의 추천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인발연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처음 연구원에 입사한 지 3일만에 떠난 설별 워크숍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너무나 격한(?) 환영을 받아, 2시간 만에 숙소로 돌아와 잠을 청한 사건이 있었다. 과음의 잔상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생생한,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다. 우리 연구원이 다른 기업이나 조직에 비해 직장 동료들 간 유대관계나 친밀도가 높은 편인 것 같아서 근무하기가 더 편한 것 같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연구원 분위기가 급격하게 달라진 듯하다. 조금은 냉소적이고, 차가워진 것 같은 경향이 있어서 안타깝다. 예전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 느낌이다. 복지도 보느스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뭉쳐지지 않고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인상이다. 또한, 연구원의 직원으로서 복지가 직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주길 바라지 않는 사람을 없을 터. 연구원 차원에서 초빙연구원들에게도 좀 더 따뜻한 시선이나 느낌을 주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생긴 일이겠지만 초빙연구원들간의 교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최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서로 얼굴 정도는 알고 지냈는데, 요즘은 모르는 얼굴들이 많아졌다. 오며 가며 반갑게 눈인사라도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김정숙 초빙연구원은 무슨 일이든 마음먹은 일은 해봐야 작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대학 때는 대학생활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도, 동아리 활동도, 과를 위해서도 일하는 열혈



대학생이었다.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지금까지도 그런 기질(?)은 남아 있어서, 꽃히는 일이 생기면 무엇이든 끝을 보는 편이다. 그녀에게 있어 SK 와이번스가 그렇다. 야구 입문은 2007년 SK 와이번스가 첫 우승을 하던 그해 한국시리즈 마지막 경기를 보면서부터다. 그 짜릿함을 잊을 수 없어서 그때부터 올해까지 열혈 광팬으로 살고 있다. 심지어 야구는 야구장에서 봐야 맛있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날 경기를

다시 보기로 시청하면서 전력(?) 분석을 해야 하고, 47사의 야구전문 프로그램 시청과 각종 보도자료를 통한 결과와 기록들까지 확인한 후에야 편안히 잠이 드는 경지다. 스토브 리그(stove league)가 한창인 이 혹한에도, 돌아올 야구 시즌을 기다리며 특이나 인상적인 경기를 다운받아 틈날 때마다 시청하는 일명 야동(야구 동영상) 마니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근에는 심판 학교나 전력분석원 양성 교육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끝을 모르는 그녀의 야구에 대한 열정은 최소한, 그녀가 존경해마지 않는 김성근 감독과 사랑해마지 않는 김강민 선수가 은퇴해야 좀 식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녀는 평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과 '안달복달 하면서 살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조금 떨어져서 느긋하게 기다리자는 주의다. 간단히 말해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생각이다. 그녀는 '이래서 살이 안 빠지나?' 라고 조용히 되뇌면서 이내 웃는다. 낙천적인 성격이다. 그렇지만 2013년에는 지난 십여년간 생각만 할 뿐 굳이 도전하지 않고, 오히려 금기시(?)했던 영역, 다이어트에 도전해볼 작정이다.



김정숙 초빙연구원은 곧 서른 둘이 된다. 서른을 넘고부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도 많은 게 사실이다. 현재 연구원에 몸담고 있지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자리기 때문에 고민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다. 또, 당장은 아니지만, 막연히 내후년쯤엔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 생각들이 많다. 그렇지만, 마흔 두 살쯤에는 귀농까지는 아니어도 도시를 떠나 자연과 벗하면서 사는, 전원생활을 꿈꾸고 있다. 그곳에서 가꾸 공방을 해볼 계획도 있다. 직접 나무를 만지고, 가구를 제작해 보고 싶어 한다. 차근차근 천천히 그녀의 삶을 가꾸며 살고 있는 김정숙 초빙연구원. 그녀는 꿈에 한걸음씩 다가가기 위해 저축도 열심히 하고, 재테크나 주식도 조금씩 도전 중에 있다. 시집갈 밀천뿐만 아니라 자기 명의의 아파트도 소유한, 재산세 내는 여자다. 그리고, 네명의 어린 조카들도 끔찍하게 챙기는 이모다. 인터뷰를 할수록 그녀의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들었다. 인위적이고 가공된 매력이 아닌, 성격 좋고, 살뜰하고, 인간미 넘치는 그녀의 공작은 멋스러움으로, 그녀의 삼십대가 찬란하게 빛나길 바라본다.

■ interviewer/글 : 장순지(사무처 경영관리팀)

■ 사진 :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우리 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서 고참격인 김정숙 초빙연구원은 올해로 입사한지 5년 3개월이 되었다. 대기 환경을 전공한 그녀는 전공 외에도 인천지역의 기후 변화 관련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12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경인로2_경인로와 전흔(戰痕)



京仁路와 전흔(戰痕)

글/김창수(도시인문학센터 센터장) 사진/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제물포 개항 이전까지 경인로의 상태는 자연도로에 가까웠으며 개항되던 해인 1883년 11월 노퍽을 확장하여 우마차가 통행할 수 있는 상태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경인로는 우마차 통행이 가능한 유일한 도시간 도로였던 셈이다. 이 노퍽은 청일전쟁 당시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일전쟁(1894) 당시 인천항에 상륙한 일본군이 서울로 침공할 때 경인간 도로 폭이 2m에 불과한데다 고개가 많아서 보행이 곤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인천부사』 경인로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신작도로로 바뀐 것은 러일전쟁(1904) 직후였다. 이후 1915년에는 노퍽 10m의 넓은 도로로 바뀌었으며, 1917년 한강 인도교가 건설되어 경인간 도로 통행에 큰 변화가 생겼고, 1931년에 이르러서는 노퍽 30m로 확장되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개항하던 해인 1883년에 제물포에 도착한 미국의 외교관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 1855~1916)이 남긴 기행문을 더 살펴보기로 하자. 그는 1883년 겨울인 12월에 도착하여 가마를 타고 서울로 갔다. 그는 당시 가마의 모양과 가마를 타고 여행하는 이색적 느낌을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다.

정확히 측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물포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약 27마일 정도다. 서울과 통하는 주요 통로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넓은 도로로 말, 가마, 사람 그리고 짐을 실은 황소가 모두 이 길로 지나간다. 평민은 걸어서, 관리는 조랑말이나 가마를 타고 다니는데 조선에서 가마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유럽인들한테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언뜻 보면 사치스럽고 화려하며 위엄이 느껴질지 모르나, 실상은 걸만 번지르르한 불편한 교통수단이다.

가마는 의자가 아니라 막대기 위에 얹힌 장방형 상자다. 상자 속은 가로 세로 각각 2.5 피트의 빈 공간으로, 거기 들어가 앉아 있으면 마치 움직이는 방안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앞에는 들고 나는 문을 두었고, 그 위에는 여닫을 수 있는 휘장이 붙어있다. 양 옆으로는 작은 창을 냈는데, 거기 붙은 2인치 크기의 네모난 유리는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여행자가 바깥을 내다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창이 작고 높아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치 욕지가 보이지 않은 바다 위에 떠있는 기분이 든다. 게다가 안으로 전달되는 흔들림은 더욱 그런 환상에 빠져들게 한다.

두 사람이 가마를 매는데, 막대기 양끝에는 가죽끈으로 알맞게 멍에를 만들어 등과 팔에 부담을 나누어 질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장치는 안에 탄 사람의 몸 전체를 움직이게 하면서 승객에게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Percival Lowell, Chosen, The Land of Morning Calm, 1890

당시 경인로는 개항이후 입국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왕래로 꽤 번잡한 도로로 바뀐 모양이다. 그가 당시 가마에는 가마를 탄 사람이 겨울에도 문을 열지 않고 바깥을 내다볼 수 있게 작은 유리창을 달려 있었다는 언급도 흥미롭다. 가마에도 개화 바람을 맞아 작은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개항 직전인 1882년, 그러니까 경인로가 중립로의 일부로 남아 있을 당시 이 도로로 한양과 인천간 통행이 어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다. 임오군란 당시 일본공사일행의 피난기록이 그것이다. 임오군란을 일본인들은 '메이지 15년 사변' 혹은 '조선사변(朝鮮事變)'이라고 부르며, 사건의 발단과 전개과정을 다른 보고서나 기록이 다수 남아 있다. 하나부사 공사를 수행했던 육군 대위 미즈노(水野), 공사관 서기관 곤도(近藤)가 남긴 「조선사변(朝鮮事變)」이 대표적 사례이다.

하나부사(花房義質) 공사가 관원을 집합시켜 화살이 퍼붓는 공격을 뚫고 거리에 나가 왕궐(王闕)을 향했지만, 결문(關門)이 굳게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인천 쪽으로 향하였다. 공교롭게도 큰 비가 억수로 쏟아져 천지가 모두 어두워져 보행은 매우 힘들었다. 양화진(楊花鎭)에서 배를 빼앗아 한강을 건너 민가(民家)에서 보리밥을 지어서 기아를 달래기도 하면서 다음날인 24일 하절

무렵 겨우 인천부에 도착했다.

부사(府使) 정지용(鄭志鎔)은 온후(溫厚)한 좋은 관리로서 일행의 모습이 여느 때와 다른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였다. 그 연고를 물어야 그는 처음으로 서울(漢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위안하면서 일행의 의복을 온돌에 맡겼다. 바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향응(饗應)이 훌륭해서 처음으로 마음 놓고 잠을 청할 수 있었다.

朝鮮事變

임오군란이 발발한 1882년 6월 9일(양력 7월 23일)이었다. 일본 공사 하나부사(花房義實)를 비롯한 30여명의 일본 군속들은 봉기한 조선 군인들과 백성들의 공격을 피해 한강을 건너 인천으로 도주하였다. 조선군의 공격으로 당일에만 조선군대의 교관으로 있던 육군 중위 호리모토 레이조를 비롯한 7명이 살해되었다. 하나부사 일행이 23일 저녁 양화진에서 출발하여 당시 인천도호부 관아가 있었던 관교동에 도착한 것은 이튿날 해질 무렵이었으니 꼬박 하루가 걸렸던 셈이다. 물론 이들은 양화진에서 이들의 도강(渡江)에 의구심을 품은 관리나 사공들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를 빼앗아 타야 했고, 폭우를 뚫고 야간에 행군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배를 탈취하여 도강한 것은 양화진의 관리들은 하나부사 일행이 도강하기 위해 배를 빌려려 하자 평소 비용의 10배에 달하는 요금을 요구하며 사실상 협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1882년 당시 경성에서 인천까지 인부 고용료는 평소 30문 정도였는데 하나부사 일행에게는 150문 내지 200문 요구하였으며, 양화진에서 제물포까지 운송선 임대비용은 평소 6,7관문이었었는데 무려 70관문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도강 협조를 요구하는 곤도(近藤) 서기관에 대해 주변의 조선인들이 욕설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했다.

이들은 조선 군인에 추격을 받고 있어 한가롭게 걸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하나부사 일행이 인천부청에 도착하자 한양의 정변 소식을 자세히 알지 못했던 인천부청 관리들과 부사(府使) 정지용(鄭志鎔)은 음식과 의복을 주고 휴식을 취하게 배려해 주었다. 당시 인천부사 정지용은 하나부사 일행을 맞이하여 후대해준 덕분에 일본인들에게는 ‘온화하고 친절한 조선 관리’라는 평을 얻게 되지만, 정작 본인은 대원군의 소환을 받게 되자 스스로 자결하게 된다.

하나부사 일행이 인천부에서 젖은 옷을 말리고 요기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추격하고 있던 군인들과 인천부민들이 부청을 포위하고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인천부에서의 포위공격으로 일본인 순사 히로토 마사카츠와 타고 타로, 고용인 미즈지마 요시(水島義), 어학생(語學生) 긴토 미찌카다(近藤道堅), 공사관 사환인 스즈기 긴타로(鈴木金太朗)와 이토오 우키찌(飯東王吉) 등 모두 여섯 명의 일본인들이 살해되었다. 혼비백산한 일행은 포위망을 뚫고 다시 제물포로 도주하였다.

하나부사 일행이 서울에서 탈출하여 인천부청으로 도착하여 부사의 배려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인천부민들의 습격을 받아 다시 도주했던 위기의 순간을 한시로 표현한 자료가 있다. 일본 외무성 4등서기관 이시이 하타데이(石幡貞)의 잡시 「인천에서 다시 습격당하다(仁川再遭難)」가 그것이다.

습격받아 사지(死地)가 된 한양을 탈출하니
역수되어 비내리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한강에서 철거하는 보고서를 써보내고
배를 뺏아 타는 장면 임진년¹⁾과 비슷하네
진흙탕에 빠지고 미끌어지며 출렁임을 치니
날이 새니 흉도(凶徒)들²⁾ 우릴 추격하지 못했구나
성곡에서³⁾ 옷 말리고 몸을 잠시 녹이는데
멀건 죽물 마시노라니 노타(瀾沓) 주린 생활
뛰고 걷고 쓰러지니 피곤하기 그지없네
인천에서 친척같은 은인을⁴⁾ 만났건만
어찌 알았으랴 조용하던 담장에서 또 난리가 날 줄을
사면초가(四面楚歌) 이려 했나 속수무책 아니런가
문 밖에서 무사들은 다치거나 죽어가는데
관청이 지척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네⁵⁾
총소리 울리자 도적들⁶⁾ 나타난다
피투성이가 되어 나타난 사람은 누구인가
죽음을 무릅쓰고 도적들과 대적한다
문을 나서 소리친들 뵈죽한 수가 없다
한스럽다 내 임무는 무술(武術)이 아닌 것을⁷⁾

(하략)

仁川再遭難

漢地一擊出死地 大雨沱滂何所之 漢江作書報撤去
奪舟又似壬辰時 深泥滑亂步武天 天明凶徒不追隨 成穀燎衣始取暖
糜粥猶思瀘沓飢 徒步蹣跚疲困極 交親聊賴仁慈 何料肅變復起
四面楚歌討慮差 門外壯士傷且死 廳堂尺尺未相知 銃丸轟射始見賊
鮮血滿身來者誰 皆目百死鑒此賊 出門吶喊策何奇 恨我用武非其任

1) 양화진에서 배를 빌려주지 않자 배를 탈취하여 도강했던 사건이

임진왜란 당시의 해전을 방불케 한다는 의미.

2) 인천부의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킴

3) 성곡(成穀)은 부평 인근의 지명

4) 이들을 맞이해준 인천부사 정지용을 가리킨다.

5) 인천부사의 도움을 주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6) 인천부의 군인과 민간인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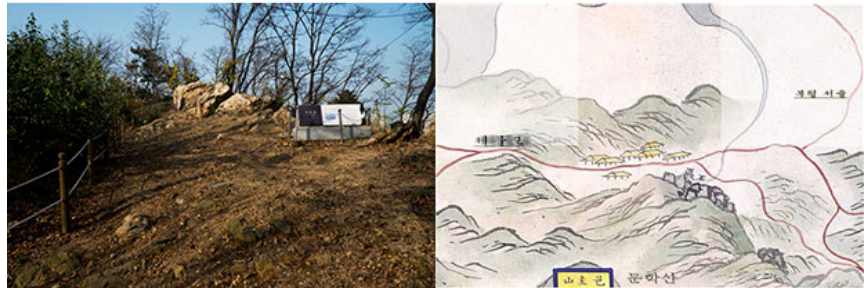
7) 필자가 무관아 아니라 문관 신분이어서 지켜보기만 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이들이 도주한 길이 바로 제물포와 인천부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금의 학익동 고개를 넘어 용현동, 송의동을 거쳐 도원고개를 지나가는 길에 해당하는 길이다. 이들은 25일 저녁 5시경 지금의 파라다이스 호텔 언덕 아래인 제물포 부두에 도착하여 월미도로 건너가려 하였지만, 아무도 배를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 다시 한 어민의 배를 탈취하여 밤 12시경 월미도로 건너갔으며, 이튿날인 26일 오후 3시경에 해상으로 탈출하였다가 영국 측량선 플라잉피시(Flying Fish)호에 구조되어 나가사키로 되돌아갔다.

구사일생으로 도주했던 하나부사는 일주일 뒤인 8월 4일 천여 명의 해군과 네 척의 함대를 이끌고 제물포로 되돌아 왔다. 조선정부에 임오군란의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등을 요구하기 위한 이른바 '문죄(問罪)' 방문이었다. 당시 조선정부는 하나부사와 일본해군의 무력 시위에 굴복하여 1882년 8월 30일, '제물포조약'이라 부르는 「조일수호조약」가 체결되었다.

제물포조약은 임오군란 책임자 처벌, 일본인 사망자 피해보상 (5만원), 일본국이 입은 피해보상(50만원), 공사관 호위를 위한 일본군 경비병의 조선 파견, 제물포 개항 등을 비롯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담고 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 지배의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조선은 대외적으로는 청나라와 일본에 주권을 침식당하고 대내적으로는 수구파와 개화파의 대결로 국정의 혼란상이 극으로 치달게 된다. 임오군란이 물고 온 거센 역풍이었다.

제물포에서 십리 거리에 위치한 석바위는 옛 경인로 연변에 있었던 큰 장마당이었다. 옛 지도에는 개항이전 경인로 연변의 풍경이 나타나 있다. 그 중 석바위와 석바위 장터의 모습을 보면 이 일대의 지명이 왜 '석바위'로 불리고 있는지 수긍할 수 있다. 석암(石巖)은 '석바위'를 한자식으로 표기한 지명이다. 석암장(石巖場)이란 지명은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된 「인천부지도」(1872)를 비롯한 조선후기의 여러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항 직전 무렵의 인천 지형을 묘사한 화도진도(花島鎭圖 : 1879)에는 주안포의 갯골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한 커다란 바위산을 석암이라고 표기하고, 바위산 북쪽의 도로 주변에 가게로 보이는 여러 채의 집들을 자세하게 묘사해 두었다. 바로 이 바위산이 석바위라는 지명의 기원이며, 지금은 석바위소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다. 석암산 정상부에는 지명유래의 증거라 할 수 있는 큰 바위들이 지금도 여럿 남아 있다.



석바위공원 석바위가 표기된 옛 지도

석암에 장터가 생긴 것은 한양으로 가는 길과 남촌으로 가는 길, 안산을 거쳐 수원으로 가는 길에 갈라지는 교통 요지였기 때문일 터이다. 경인로가 석바위를 지나면 주안산(朱岸山: 지금의 만월산)이 가로막고 나선다. 이 산비탈을 넘으면 부평 삼거리로 부평역으로 가는 길과 부개동을 거쳐 부천으로 가는 길로 갈라진다. 이곳이 전설이 많은 원통이 고개이다. 원통이 고개는 굴포운하와 관련된 전설로 이름 높지만, 한국전쟁 당시 적익들이 양민학살을 저지른 곳이기도 하고, 인천상륙작전 이튿날 새벽에 벌어진 부평전투의 현장이기도 하다. 부평전투에서 미해병은 매복전을 전개하여 인천으로 향하던 인민군 기갑중대와 보병 2백명을 제멸시켰다. 현재 원통이 고개의 끝짜기는 부평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이 간석5거리에서 부개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근처는 이래저래 '원통'한 장소인 셈이다.



PHOTO ESSAY



도시 생활은 관계와 욕망이라 했다.
눈이 내리니 세상이 하나이다.
조금만 더 함께하고 이해할 수 없을까?

하루만이라도 눈처럼 살고 싶다.

조승현 쓰고, 석종수 찍다.

기울에서 만났 맛집

글 장순지(사무처)
사진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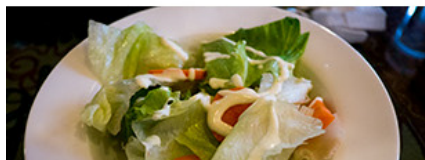
한국에서 맛보는 인도·네팔 카레
비하니[Bihanee]

카레를 정말 좋아해서 인도나 네팔의 정통 카레를 즐기고 싶지만, 못하는 신세(?)인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반가울 식당이 부평역 광장 인근에 있다. 상호는 '비하니'(구, 퍼스트 네팔). 네팔 현지인인 저건나터 올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 네팔 식재료를 공수해서 조리하고 있어서 정통 카레맛 재현이 가능하다.



네팔 사장님에 종업원들도 현지인들이어서 주문에 애먹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걱정일랑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사장님은 웬만한 우리나라 사람 못지않은 한국어 구사 능력을 보여주신다. 한국에 온 지 7년째라고 들었는데, 발음도 정확한 편이다. 메뉴들도 생소하다면, 세트메뉴를 권하고 싶다. 다양한 카레와 난, 라씨까지 맛볼 수 있어서 좋다. 우리도 스페셜 런치 세트(2인분/25,000원)를 주문했다. 세트 메뉴에는 그런 샐러드, 파퍼드, 수프, 탄두리 치킨 반마리, 커리, 난과 밥, 라씨 등이 제공된다.

그런 샐러드는 머 특별할 게 없다. 그냥 평범한 양배추, 양상추 샐러드다. 스프도 마찬가지로. 파퍼드는 마치 얇은 밀전병을 튀겨놓은 듯한 모양인데, 맛은 찰조름해서 맥주 안주에도 좋을 것 같다. 부셔서 스프에 섞어 먹든가 적어 먹든가 하는 용도(?)인 듯하다. 먹는 사람이 알아서 제일 맛있는 방법으로 먹으면 될 것 같다. 다음으로 탄두리 치킨. 탄두리 치킨은 인도 전통 요리 중 하나로 요거트나 향신료에 절인 치킨을 화덕에 굽는 것인데, 양고기기도 많이 이용한다. 향신료의 향은 있지만 거부감이 드는 정도는 아니어서 우리네 입맛에도 잘 맞고, 기름기가 빠져서 담백하고 고소하면서 부드럽다. 늘상 먹는 후라이드 치킨과는 색과 향부터 다른, 그리고 튀기지 않고, 구워서 건강에도 더 좋은 치킨이다.





음료로 제공되는 라씨는 플레인 요거트 맛과 비슷한데, 인도식 요거트라 생각하면 된다. 국내 카페에서도 라씨를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마셔본 라씨보다는 독특한 향이 느껴져서 한번에 주욱 들이키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맛은 괜찮다. 호불호가 있는 음료지만 개인적으로는 먹을만했다. 막 구워낸 따뜻한 난은 부드럽고 담백하다. 먹기 좋게 찢어서 커리에 찍어 먹으면 환상적이다. 치킨 커리의 치킨도 야들야들하고 커리맛도 여느 브랜드 커리맛에 뒤처지지 않는 맛이다. 커리에 밥을 넣고 비벼 먹어도 맛있고, 난을 찍어 먹어도 맛있다. '비하니'는 인도나 네팔식 커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모임도 많은 연말연시에 주로 먹게 되는 고기나 회 대신 독특한 분위기와 새로운 음식, 인도와 네팔의 맛이 살아있는 '비하니'에서 송년회나 신년회 모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주소 :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185-118 1층 *전화번호 : 032-525-8771

제물포 개항 이전까지 경인로의 상태는 자연도로에 가까웠으며 개항되던 해인 1883년 11월 노복을 확장하여 우마차가 통행할 수 있는 상태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경인로는 우마차 통행이 가능한 유일한 도시간 도로였던 셈이다. 이 노복은 청일전쟁 당시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12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마이애미 속의 작은 쿠바:리를 하바나



도시경연연구부 서 봉 만 연구위원

마이애미 대도시권의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히스패닉 혹은 라틴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약 64.5%에 이른다. 이들 중 다수는 영어로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며, 실제로 영어가 통하지 않는 가게도 많다. 그 중에서도 마이애미 다운타운의 서쪽에 위치한 쿠바 망명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리를 하바나"라고 동네가 있는데, 쿠바 망명자들과 여타 라틴 아메리카 이주민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카페, 그리고 쿠바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집권으로부터 망명해온 쿠바인들은 리를 하바나를 중심으로 마이애미 속에 작은 쿠바를 형성해 나갔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리를 하바나의 작은 축제일인데, 다양한 거리 행사들과 함께 갤러리 등에서 특별한 이벤트들이 열려 쿠바 문화를 관광객들에게 소개한다.



리를 하바나의 아침, 쿠바 망명자들은 여느 미국인들처럼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한다. 다만 커다란 머그잔에 드립 커피를 가득 마시는 보통 미국 사람들과 달리, 리를 하바나의 쿠바인들은 진한 에스프레소에 설탕을 잔뜩 넣은 커피를 소퓌놀이에 어울릴만한 앙증맞은 잔에 한 가득 담아 음미한다.

◀ 리를 하바나의 거리 카페



▲ 도미노 파크의 막시모 고메즈 동상과 도미노 게임에 열중하는 사람들

지역공동체에서 고령자들에게 건전한 오락과 사회생활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미노 파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쿠바인들의 마이애미 초기 정착을 도와 준 사업 중의



하나가 시가 제조업이었다. 리틀 하바나의 시가 가게에서는 손으로 담배잎을 말아 시가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쿠바 망명자들에게 시가의 부드럽고 쓴 맛은 사회주의 이전 자신들이 누렸던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향수를 상징하며 대쿠바 무역 제재 조치의 대상을 의미한다.

◀쿠바산 시가를 마는 가게 점원

리틀 하바나는 현재 진행형이다. 계속해서 쿠바를 떠나 미국으로 망명길에 오른 사람들은 마이애미의 리틀 하바나로 흘러 들어 오고 있다. 거기서 쿠바인들은 미국 속의 작은 그들만의 쿠바를 만들어가고 있다. 마이애미를 가시면 리틀 하바나를 관통하는 칼레 오초(Calle Ocho) 거리를 꼭 걸어보기를 권한다.

마이애미 대도시권의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히스패닉 혹은 라틴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약 64.5%에 이른다. 이들 중 다수는 영어로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며, 실제로 영어가 통하지 않는 가게도 많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12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연구

조승현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 조경두 도시기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녹색기후기금 개요

GCF는 기후변화 관련 기금을 운영하는 대형 국제금융기구로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World Bank)이라 할 수 있으며,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로 앞으로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UNFCCC) 제16차 당사국 총회(COP16)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2011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기금설계방안을 채택하였다.

2. GCF 사무국 유치신청서의 비교분석

독일의 본은 사무국 유치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물량 공세를 핵심 유치 전략으로 하였다. 세계경제 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경제상황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스위스의 제네바는 국제기구 도시로서의 명성과 가치를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한편, 기후변화 전문가모임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WMO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전문가 조직과 국제 금융의 중추기지, 국제 외교의 중심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육과 환경을 강점으로 하는 정주여건을 내세웠지만 예산 압박, 스위스 프랑의 강세, 도시 안전, 주거와 사무실 부족, 재건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비해, 인천 송도는 경쟁력에 있어 제네바와는 엇비슷하지만 본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지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정지원 항목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때 송도는 본에 비하여 열세에 처해있었다. 유치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 약속이 있었는데, 2012년 6월 Rio+20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저개발국 녹색성장 지원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2013~2020년까지 5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고, 기금 출연금과 별도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능력 배양사업에 4,000만 달러 지원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3. GCF 유치 활동 분석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 분야에의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개도국 지원이라는 기금 설립 취지에 맞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책임자임을 자처하였다. 또한 한국의 독특한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지식 나눔 프로그램'인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등을 통해 개도국과 공유하는 노력을 지속해 온 점 등을 부각하였다. 그리고 국제기구로 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녹색기술센터(GTC) 등과의 연계효과를 부각하며 GCF의 시너지 확대 재산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국제기구 2만1000여 개 중 미국(3,646개)과 벨기에(2,194개), 프랑스(2,079개), 영국(2,048개) 등 유럽과 북미에 편중된 국제기구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4. 향후 일정과 과제

2012년 11월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18) 등을 통하여, GCF 사무국의 최종 승인과 GCF기금 규모, 조성계획 등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경제상황 악화 등 향후 세계경제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선진국이 중심이 될 기금조성에 적지 않은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GCF 기금이 원래의 계획대로 모아지고 사무국 유치에 따른 실질적인 유치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향후 GCF 이사회 등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천광역시에는 GCF 사무국 유치도시에 걸맞는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는 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글로벌녹색환경수도'로 정책지향 목표를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변형해나가야 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도시를 지향하며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역대 최고의 친환경 아시안게임 개최전략 창안과 범정부차원의 협력 요청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GCF 사무국 유치와 기금 운영에 의한 본격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때까지의 과도기적 재원운용방안에 관한 세밀한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CF는 기후변화 관련 기금을 운영하는 대형 국제금융기구로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World Bank)이라 할 수 있으며,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로 앞으로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GCF 사무국 유치전략 비교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12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GCF 사무국 유치전략 비교

조 경 두 도시기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2012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에서 기후녹색기금(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설치하기로 한 지난 10월의 GCF 이사회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인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해 경쟁했던 송도와 독일 본, 스위스 제네바의 유치제안서에 담긴 다양한 지원 약속을 비교함으로써, GCF 사무국의 잠재적 가치와 향후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재정지원

○ 송도

사무기기 구매 비용 : 1.4백만 달러

사무국 준비 필요자금 지원 : 2012년 2백만 달러

운영자금 지원 : 2019년까지 매년 1백만 달러 추가 지원

2012-2017년까지 개도국 기후변화 역량구축 지원 : 4천만 달러 지원

○ 본

임시사무국 준비 비용 : 1백만 유로

사무국 운영비 지원 : 2013년 2백만 유로, 2014년부터 매년 4백만 유로

GCF 관련 컨퍼런스 비용 : 2013년 1백만 유로, 2014년부터 매년 2백만 유로

회의 참가 개도국 여행 경비 지원 : 2013년 50만 유로, 2014년부터 1백만 유로

이주비용 환급 : 2013~2015년까지 매년 80만 유로

신규 고용직원의 독일어 교육비 지원 : 2013년부터 6만 유로까지

○ 제네바

사무국 기기 등 착수 비용 : 30만 스위스프랑

사무국 운영비용 : 2014~2016년 매년 3백만 프랑

개도국의 기후변화 역량구축 지원 : 2014-2016년까지 매년 1백만 프랑

회의 참가 개도국 경비 지원 : 2014~2016년 매년 12만 프랑

■ 직원 복리

○ 송도

대중교통 및 문화체육시설 이용 할인,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법 교육, 의료보험, 운전면허증, 부동산 취득 지원, 사무국 직원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입학 및 장학금 지원

○ 본

사무국 인근에 주간 45시간, 생후 4달에서 취학연령까지 이용가능한 탁아시설 운영

○ 제네바

기 존재하고 있는 국제기구 직원들과 동등한 처우

■ 사무국 건물

○ 송도

I-Tower 21,500㎡ 공간 이용, 송도컨벤시아 연간 20일 무료이용

UN APCICT(United Nations Asia and Pacific Training Centr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UN ESCAP(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ISDR(U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을 포함하는 5개 국제기구 이주 예정

UN 안전규정에 적합한 사무국 건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인천시 공무원 20명의 파견근무 가능

○ 본

임시 사무공간 및 신축건물(75.5백만 유로 상당) 제공

(2013년부터 100여명, 2014년부터 추가 100여명 근무)

The World Conference Center Bonn(WCCB) 이용 권리와 할인 적용

○ 제네바

2014~2016년 1999년 완공된 세계기상기구(WMO) 건물 무상임대, 이후 3년간 보조 지속
컨퍼런스 공간(Geneva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 무료 제공

■ 정주 여건

○ 송도

169.5㎢ 면적과 12.3만명 인구수용을 목표로 조성된 계획도시

수도권 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과정에 걸친 16개 국제학교 입지

송도 Chadwick School(정원 2,086 명), Dalton School(정원 1,560 명), 글로벌캠퍼스

수도권과 연결되는 전철

개방된 금융시장 활용 가능 : 수도권 외국계 금융기관과 경제위기 속 국제적 투자처 주목

○ 본

기후변화당사국총회(UNFCCC) 사무국을 포함, 18개 UN사무국과 1,000여명 UN직원 근무

본 인근에 150개의 국제적 기구 활동 중

재생에너지, 온실가스저감,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지원, 대학 및 연구기관 장학금 지급

○ 제네바

169개국 외교사절, 229개 국제기구, 32개 국제기구 본부(WHO, WTO, ICRC 등),

250개 이상의 국제 NGO와 2,500명 직원, 40,000명의 외교관과 공무원, 8,500명의 UN직원

The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IHEID), The University of Geneva, The Swiss Network for International Studies(SNIS) 등 교육기관

<표 1> 재정지원 제안 내역 비교(송도, 본, 제네바)

(단위:백만USD)

도시	항목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합
송도	착수지원		3.4								3.4
	운영자금			1	1	1	1	1	1	1	7
	역량 구축				10	10	10	10			40
	회의개최비용										
	회의참가보조										
	직원이사경비										
	현지언어 교육										
	합 계		3.4	1	11	11	11	11	1	1	50.4
본	착수지원		1.26								1.26
	운영자금			2.52	5.04	5.04	5.04	5.04	5.04	5.04	32.76
	역량 구축										
	회의개최비용			1.26	2.52	2.52	2.52	2.52	2.52	2.52	16.38
	회의참가보조			0.63	1.26	1.26	1.26	1.26	1.26	1.26	8.19
	직원이사경비			1.01	1.01	1.01					3.02
	현지언어 교육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53
	합 계		1.26	5.49	9.90	9.90	8.90	8.90	8.90	8.90	62.14
제네바	착수지원		0.32								0.32
	운영자금				3.15	3.15	3.15				9.45
	역량 구축				1.05	1.05	1.05				3.15
	회의개최비용										
	회의참가보조				0.13	0.13	0.13				0.38
	직원이사경비										
	현지언어 교육										
	합 계		0.32		4.33	4.33	4.33				13.29

* 주 : 1)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

: 합계 일부는 변동될 관계로 일치하지 않음

: 1Euro(본)=1.26USD, 1Swiss Franc(제네바)=1.05USD

2012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에서 기후녹색기금(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설치하기로 한 지난 10월의 GCF 이사회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인준하였다.